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ing Behavior Scale
for Parent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이선희(Sun-Hee Rhee)¹⁾

도현심(Hyun-Sim Doh)²⁾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a parenting behavior scale for parents of school-age children and to analyze the scale in terms of both reliability and valid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mothers of 1st to 3rd grade students in four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778 mothers were administered a parenting behavior scale with 123 items, and 779 mothers were ask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in which 45 items remained after a series of analyse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dentified five factors, Warmth, Reasoning, Intrusiveness, Coercion, and Neglect. The Cronbach's α of each factor demonstrated results of .82~.86, suggesting that the scale ha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Concurrent validity was established by using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reover, cross-validation was also verified for the five factors. Consider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it can clearly serve as a useful tool for assessing parenting behavio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hild development.

* 본 논문은 2012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Rh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unheerhee@hanmail.net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양육행동 척도(parenting behavior scale), 학령 초기 아동(early school-age children), 척도 개발(development of scale), 타당화(validation).

I. 서론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결과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활용되어 왔다. 국외의 경우,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관찰법(Schaefer, Bell, & Bailey, 1959)이나 부모 면접(Milton, 1958), 질문지법(Arnold, O' Leary, Wolff, & Acker, 1993; Becker, 1964; Parker, Tupling, & Brown, 1979; Rohner, 1991; Schaefer, 1959, 1965a, 1965b; Symonds, 1949)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외 양육행동 척도들을 번안하여 사용하거나(예: Kim, 2001; Lee, 1983; Song, 1992 등),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예: Huh, 2004; Kim, 1985; Kim, 2011; Lim, 2003; Park, 1995; Park & Lee, 1990 등).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몇몇 양육행동 척도들은 신뢰도가 낮거나(예: Park, 2001),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거나(예: Lee, 1983), 혹은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응답시 어려움이 있으며(예: Park, 1995),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양육행동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예: Lim, 2003; Park & Lee, 1990).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들은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외 척도들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예: Lee, 2003; Yoon, 2004 등) 기존 양육행동 척도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국내의 양육행동 척도들은 주로 유아기 자녀(Lee, 2007; Park, 2001; Park, 2010)나 학령 후기(Park, 1995; Park & Lee, 1990)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경향이 있어 또 다른 발달단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학령 초기는 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은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환기를 겪게 되면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삶의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분리불안이나 또래집단 내에서의 좌절감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Doh, Lee, Kim, Choi, Lee, & Kim, 2011; Kim, 2004). 그들의 부모 역시 자녀가 경험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가 매우 드물어 학령 초기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 자녀나 학령 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양육행동을 측정해 오고 있다(Kim & Chang, 2013; Oh,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 초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양하게 분류해 왔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온정(warmth)과 통제(control)를 들 수 있다(예: Becker, 1964; Cho, Lee, Lee, & Kwon, 1999; Perry & Bussey, 1984; Rohner & Rohner, 1981). 예를 들

면,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직교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Maccoby와 Martin(1983)은 수용성/반응성과 통제/요구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행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Becker(1964) 역시 적대-온정, 제한-허용으로 양육행동의 차원을 분류하여, 온정과 통제의 이차원적인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온정과 통제의 두 가지 축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다정한지와 단호한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온정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자녀에 대해 칭찬, 격려 등의 강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정의되며, 양육행동의 단일 구성요소로서 수용과 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Crase, Clark, & Pease, 1978; Huh, 2004; Park, 1995; Park & Lee, 1990; Rohner, 1984; Shaefer, 1959). 수용은 애정, 돌봄, 그리고 자녀에게 표현하는 사랑으로, 뽀뽀하기,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옷어주기와 같은 신체적 표현과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 칭찬하기, 이야기해주기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수용은 자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부모의 행동으로 일상적이거나 의무적 행동이 아닌 자발성과 적극성이 가미된 것이다(Rohner, 1984). 지지는 자녀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양육행동으로 칭찬하기, 격려하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된다(Barnes, Reifman, Farrell, & Dintcheff, 2000).

반면, 통제는 논리적 설명(reasoning), 처벌, 거부, 제한, 감독 등과 같이 다소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요소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된다(Barber, Stoltz, & Olsen, 2005; Perry & Bussey, 1984; Rollins &

Thomas, 1979; Steinberg, 1990). 따라서 양육행동의 구성요소로서 통제는 온정과 같이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기 보다는 몇 가지 구성요소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개입(intrusiveness), 강압(coercion), 거부, 제한 등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논리적 설명은 유도적 훈육(inductive discipline)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설명하는 가르침, 합리적 설명, 지도 등을 의미한다(Huh, 2004; Karreman, Tuijl, Aken, & Dekovic, 2008; Park, 2000; Park & Lee, 1990). 후자와 관련하여, 통제에는 지시·간섭과 같은 개입과 신체적 처벌과 같은 강압 등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Karreman et al., 2008;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할 때,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설명, 개입, 그리고 강압과 같이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양육행동의 대표적 두 가지 차원으로 잘 알려진 온정과 통제는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과 같이 구분된 양육행동으로서의 방임(neglect)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방임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서(Chang, 2014; Hwang & Lee, 2010; Peterson & Durfee, 2003), 현대 우리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일부라는 점(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Oh, 2011)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양육행동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 통제, 그리고 방임의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하되, 통제의 개념

을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으로 세분화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서의 온정 및 논리적 설명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서의 개입, 강압 및 방임 등을 양육행동 척도의 기본 구성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다양한 척도 개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렴타당도 및 교차타당도 등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수렴타당도는 개발된 척도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발달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예: Buri, 1991; Cho, Bush, Xia, Wilson, Li, & Peterson, 2014; Choi, 2007; Lim, 2003). 예를 들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거나(Byrant & Crockenberg, 1980; Cohen, 1990; Dekovic & Janssens, 1992), 부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거부나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ruch & Barnett, 1981; Putallaz, 1987; Rohner, 1991; Turner & Harris, 1984). 교차타당도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개발된 척도를 다른 집단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동일한 구성요인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검증하였다(예: Choi, 2007; Huh,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교차타당도도 검증하였다.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을 시도한 연구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Lim, 2003; Park, 2010)이 보고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Arnold et al., 1993; Lee, 1983; Park & Lee, 1990).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자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학령 초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온정, 통제, 그리고 방임의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되, 통제의 개념에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을 포함하여,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 등 다섯 가지 구성요인을 가정한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7곳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평균 8.9세) 남녀 아동의 어머니들로서, 척도 개발과 타당화 작업을 위해 각각 778명과 779명이 응답에 참가하였다. 연구대상 수는 사례 수가 측정변수 수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은 되어야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Tabachnick과 Fidell(2007)의 이론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대상 아동의 발달단계를 학령기 초기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를 지나 새로

운 환경인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처음 형성하는 자녀와 이에 따라 자녀 양육행동의 변화를 경험하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Hamner & Turner, 2001)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생순위는 첫째가 295명(37.9%), 둘째와 외동이가 각각 217명(27.9%)이었으며, 가족구조는 624명(80.2%)이 핵가족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39세가 330명(42.4%), 40~44세가 302명(38.8%)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427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11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으로 214명(27.5%)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15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으로 126명(16.2%)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274명(35.2%), 자영업 및 일반판매종사자가 157명(20.2%), 전문직이 156명(20.1%)의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393명(50.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54명(19.8%), 전문직이 86명(11.1%)이었다. 가정의 월소득은 다양하게 보고되어, 500만원 이상이 198명(25.4%), 400~500만원이 153명(19.7%), 300~400만원이 137명(17.6%)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조사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대상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2. 조사도구

1) 척도 개발용: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는 Robinson, Mandlaco, Olsen과 Hart(1995)의 Parenting Practices

Questionnaire, Rohner(1991)의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Crase 등(1978)이 개발한 IOWA 부모양육행동 척도(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IPBI)를 번안한 Hong(1994)의 척도, Huh (2004), Lee(1998), Park(1995), Park & Lee(1990)의 양육행동 척도, Jung(2008)의 과보호 척도, Chae(1993)의 아동학대 척도, Kim(2008)의 아동방임 척도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들을 기초로 한 총 137개의 예비문항들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Robinson 등(1995)의 Parenting Practices Questionnaire는 번역한 뒤 다시 역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문항개발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 양육행동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5가지 요인에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온정 요인(9문항) 및 논리적 설명 요인(10문항)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개입 요인(9문항), 강압 요인(7문항) 및 방임 요인(10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응답자인 어머니가 평소 자녀를 대하는 방법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척도 개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조사절차에서 설명할 것이다.

2) 수렴타당도 검증용: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Doh(1994)의 학령기용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를 준거 도구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나(예:

Choi, 2005; Ko, 2008; Laible & Carlo, 2004 등),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예: Grolnick, 2003; Kim & Kim, 2005; Song, 2005 등)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사교성(Outgoing)(3문항), 인기도/지도력(Popularity/Leadership)(8문항), 대인적응성(Interpersonal Adjustment) (6문항),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5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여러 선행 연구들(Kim, Doh, Kim, & Park, 2007; Seo, Doh, & Choi, 2007)에서 Cronbach's α 가 .80 이상으로 산출됨으로써 그 수준이 적절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어머니의 인성특성(Lee, 2011)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Kim & Doh, 2004)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수렴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사교성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외향적인 행동특성으로 '새로운 친구와 쉽게 잘 논다.', '사교적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기도/지도력 요인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른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적응성 요인은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낸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친구들에게 협조적이다.',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할 때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 요인은 '친구들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한다.',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되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2~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사교성이 .87, 인기도/지도력이 .84, 대인적응성이 .85, 사회적 참여가 .86으로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다음의 4단계에 걸쳐 개발되었다. 1단계에서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2단계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단계에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1단계: 예비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육행동 및 양육행동 척도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다섯 가지 요인들, 즉 온정, 논리적 설명, 강압, 개입, 방임 요인들을 척도의 기본 구성개념으로 설계하였다. 양육행동의 예비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선행 국내외 문헌들을 기초로 문항의 적절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총 137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학 관련 교수 5명에게 내용 평정을 의뢰하였다.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1점), '부적절하다'(2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3명 이상이 '보통이다'(3점) 이상의 점수에 표시한 문항들을 선택하였고, 질문의 의미가 모호하게

나(예: ‘나는 거의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벌을 준다.’를 ‘나는 거의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아이의 권리(예: TV시청, 친구와 놀기 등)를 빼앗는 벌을 준다.’로), 문장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문항(예: ‘나는 아이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싶어서 핀잔을 주게 된다.’를 ‘나는 아이의 실수에 대해 비난을 한다.’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중복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였다(예: ‘나는 아이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한다.’, ‘나는 아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한다.’ 등). 그 결과, 온정 34문항, 논리적 설명 20문항, 개입 25문항, 강압 23문항, 방임 27문항, 총 1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2) 2단계: 예비조사 실시

내용타당도를 통해 완성된 129개의 문항에 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 2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5~6명의 소그룹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어머니들에게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행동 설문지를 직접 실시한 다음, 각 문항별로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항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요인별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고, 중복된 문항들이 있는지, 저학년 발달단계에 적합한 문항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문항의 의미 전달 정도나 응답 방식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123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3) 3단계: 본 조사 실시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의 강남, 강북, 강서, 강동 지역에 위치한 7개 초등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2단계에서 완성된 양육행동 질문지를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저학년 학급 중 각 학년에서 3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각 학교별로 9학급씩 총 63학급이 선정됨), 각 학년 주임 교사들에게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전달하였으며, 각 학급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회수되었다. 배부된 2,000부의 질문지 중에서 1,593부가 회수되어 79.7%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13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23부)에 해당하는 36부를 제외하고 총 1,557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63학급 중 각 학교의 학급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반으로 나눈 후, 778부는 척도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79부는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4) 4단계: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Doh(1994)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두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산출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123문항의 본 조사용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지를 확인하였다. 요인의 추출 방법은 변수들 간의 상관을 허용하는 회전방법인 사각회전방식(Kim, 2007)의 Oblimin 방식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섯 가지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밝혀진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TLI(Tucker-Lu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고,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 이하는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 초과는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받아들여진다(Hu & Bentler, 1999). 또한, TLI와 CFI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에 가까우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해석한다(Lee & Lim, 2008).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집단에 적용가능하며 일반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양육행동 척도 개발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의 수치는 .95로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p < .001$ 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행동 척도의 123문항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회전방법은 오블리민(oblimin)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내용의 요약 목적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요인모형인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다(Lee, 2000).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 스크리 검사 등에 의해 요인구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요인의 수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구자가 추측한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Tak, 2007)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가정한 하위 구성개념의 수에 기초하여 4~6개의 요인수를 지정하여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이론적으로 다른 두 개의 구성요소가 하나의 요인에 같이 묶여 요인을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요인의 수를 6개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6가지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 어떠한 문항도 나타나지 않아 요인분석을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적합한 기준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어, 요인구조의 해석이 가장 용이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Tabachnick와 Fidell(2007)의 기준에 근거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을 고려하되, 문항수를 줄이

고자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각 요인별로 10개 내외의 문항을 채택하여, 총 49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Table 1). 49개의 문항 중 46번 문항(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세게 밀

친다.)과 12번 문항(아이에게 버럭 화를 낸다.)은 두 개의 요인에서 .30이상의 유사한 요인 부하량이 산출되어 이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arenting behavior scale (N = 778)

Item no.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7	.67				
25	.66				
20	.65				
64	.64				
78	.62				
11	.61				
15	.60				
73	.60				
2	.58				
30	.57				
51		.58			
37		.57			
102		.53			
106		.50			
32		.48			
103		.46			
65		.46			
66		.46			
70		.45			
107		.45			
43			.71		
100			.67		
76			.65		
115			.63		
89			.63		
57			.61		
108			.61		
104			.60		
113			.59		
67			.58		

<Table 1> Continued

(N = 778)

Item no.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112				.51	
72				.48	
49				.46	
118				.45	
58				.44	
71				-.40	
120				.38	
39				.35	
1				.35	
80				.31	
8					-.79
3					-.78
31					-.74
41					-.43
55					-.40
16					-.40
36					-.40
46 ^a			.33		-.37
12 ^a		.30			-.37
Eigen value	10.52	4.05	3.45	1.88	1.82
% of variance	22.39	8.62	7.35	4.01	3.85
Cumulative %	22.39	31.01	38.36	42.38	46.23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인 10개의 문항들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양육으로 ‘논리적 설명(reasoning)’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의 행동을 지시하고 간섭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을 야단치는 10개의 문항들로 이러한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인 부정적 의미에서의 ‘개입(intrusiveness)’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 묶인 10개의 문항들은 어머니가 자녀양육

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방임(neglect)’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으로 묶인 10개의 문항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거나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양육으로 ‘온정(warmth)’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 묶인 7개의 문항들은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 뿐만 아니라 벌을 주는 것으로 ‘강압(coercion)’으로 명명하였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5가지 요인은 각각 전체변량의 22.39%, 8.62%, 7.35%, 4.01%,

그리고 3.85%를 설명하였고, 5가지 요인의 누적 변량인 전체 설명력은 46.23%이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온정, 통제, 그리고 방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 이론에 근거하여, 이후부터는 결과에서 산출된 요인의 순서와 관계없이 각 요인을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척도에서 나타난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47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 변수들 간의 기존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이 2636.739($df = 1024$), Q값이 2.575로 나왔으며, RMR은 .023, TLI는 .866, CFI는 .873, RMSEA는 .04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적재치)가 .5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온정 요인의 한 문항(‘아이가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준다.’)과 개입 요인의 한 문항(‘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다.’)이 삭제되어 총 45문항이 남았다. 그 결과, χ^2 값이 2422.109($df = 935$), Q값이 2.590이었으며, RMR은 .022, TLI는 .873, CFI는 .880, RMSEA는 .045로 나타나(Table 2),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적재치)가 .5이하인 문항들을 포함했

을 때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좀 더 높은 지수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Q값이 .3이하, RMR은 .05이하,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Kim, 2007)라는 기준을 만족시켰고, TLI와 CFI의 추천기준치가 .90에 가까우면 괜찮은 모형(Lee & Lim, 2008)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은 각 잠재변인 간의 어느 정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관정도는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Tak, 2007). 이와 관련하여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구성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았다(Table 3). 그 결과,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189~.588의 유의한 상관($p < .001$)을 나타내어 Berry와 Feldman (1990)이 제시한 다중공선성 검증 기준($r < .80$)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 척도에서 최종 확인된 5가지 하위요인에 대해 내적 일치도에 의해 산출한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온정은 .86(9문항), 논리적 설명은 .86(10문항), 개입은 .82(9문항), 강압은 .83(7문항), 그리고 방임은 .86(10문항)으로 나타나, 모든 하위 요인이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Table 4).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며, 각 하위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와 내용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2> Fit index of parenting behavior scale model (N = 778)

χ^2	df	Q(χ^2/df)	RMR	TLI	CFI	RMSEA
2422.109	935	2.590	.022	.873	.880	.045

〈Table 3〉 Correlations among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N = 778)

Factors	1	2	3	4	5
1. Warmth					
2. Reasoning	.582***				
3. Intrusiveness	-.450***	-.283***			
4. Coercion	-.433***	-.275***	.588***		
5. Neglect	-.353***	-.315***	.189***	.276***	

*** $p < .001$.〈Table 4〉 Cronbach's α and means of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N = 778)

Factor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M(SD)
Warmth(9)	.86	3.13(.43)
Reasoning(10)	.86	3.23(.36)
Intrusiveness (9)	.82	2.18(.44)
Coercion(7)	.83	1.94(.50)
Neglect(10)	.86	1.22(.30)

〈Table 5〉 Final factors and items (N = 778)

Factor	No	Items
Warmth	112	I smile at my child.
	72	I have warm and intimate times together with my child.
	49	I often tell my child that I'm proud of him/her.
	118	I often tell my child that he/she is so good.
	58	I enjoy spending times with my child.
	71	I am often so occupied with my own business that I hardly express love for my child.
	120	I often tell my child about his or her childhood memories.
	39	I speak to my child with a warm and friendly voice.
Reasoning	1	I often compliment my child.
	7	When my child does something wrong, I reason with him/her on what he/she did.
	25	I explain to my child the reason why we should abide by rules.
	20	When my child asks me something excessive, I explain why it is wrong.
	64	When my child shows a bad behavior, I explain what would be a right behavior in the situation.
	78	I praise or punish my child for reasons that he/she can understand.

<Table 5> Continued

(N = 778)

Factor	No	Items
Reasoning	11	When I explain something to my child, I ask him/her to put himself/herself in other people's shoes.
	15	When I am upset by my child's behavior, I also explain him/her the reason for that.
	73	When my child did something wrong, I ask him/her about reasons for the behavior.
	2	I explain to my child the consequences of his/her misbehaviors.
	30	I emphasize to my child why it is important to follow rules.
Intrusiveness	51	I instruct my child even about minor things.
	37	I meddle with everything my child does.
	102	I scold my child when his/her behavior does not meet my expectations.
	106	I scold my child when he/she goes against my wishes.
	32	I tend to find fault with my child's behaviors.
	103	I tell my child to unconditionally follow my decisions.
	65	I criticize about my child's mistake.
70	I scold my child for his/her behavior, even if the same behavior would be acceptable when done by other people.	
107	When my child doesn't follow my instruction, I say to him/her that he/she ought to do something because I tell him/her so.	
Coercion	8	I hit my child when he/she misbehaves.
	3	I hit my child when he/she doesn't obey me.
	31	I discipline my child through physical punishment.
	41	I discipline my child with punishment rather than reasoning.
	55	I punish my child when his/her behavior does not meet my expectations.
	16	When my child does something wrong, I yell at him/her.
36	I grab my child when he/she does not listen to me.	
Neglect	43	I let my child get away with his/her missing the school.
	100	I am not interested in my child so that I rarely compliment or punish him/her.
	76	I leave my child alone at home even when I know that he/she needs to be accompanied by adults.
	115	I don't provide my child with necessities, such as glasses or hearing aids.
	89	I punish my child by leaving him alone without any explanation.
	57	I fail to provide my child with necessary medical care.
	108	I often fail to provide my child with the money that he/she has to pay to the school in time.
	104	I am not interested in my child's thoughts.
113	I don't care much about my child's hygiene.	
67	I don't care much about my child's coming home late at night.	

Note. No. 71 item is recorded.

2.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 검증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한 준거 척도로 Doh(1994)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두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두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교성과 강압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Table 6). 즉, 온정과 논리적 설명은 아동의 사교성(각각 $r = .21, p < .001, r = .17, p < .001$), 인기도/지도력(각각 $r = .34, p < .001, r = .32, p < .001$), 대인적응성(각각 $r = .34, p < .001, r = .26, p < .001$), 그리고 사회적 참여(각각 $r = .29, p < .001, r = .35, p < .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논리적 설명을 하고, 자녀를 다정하게 대할수록 자녀의 사교성, 인기도/지도력, 대인적응성, 그리고 사회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은 아동의 인기도/지도력($r = -.15, p < .001$), 대인적응성($r = -.34, p < .001$), 사회적 참여($r = -.14, p < .001$)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자녀를 체벌하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인기도/지도력, 대인적응성, 사회적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과 방임은 아동의 사교성(각각 $r = -.10, p < .05, r = -.12, p < .001$), 인기도/지도력(각각 $r = -.19, p < .001, r = -.20, p < .001$), 대인적응성(각각 $r = -.34, p < .001, r = -.27, p < .001$), 사회적 참여(각각 $r = -.14, p < .001, r = -.31, p < .001$)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양육을 소홀히 할수록 그 자녀는 사교성, 인기도/지도력, 대인적응성, 사회적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양육행동 척도 모형이 표본에 종속된 모형인지 혹은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문지들을 무선적인 방법으로 반분하여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교차타당도의 결과는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서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χ^2 값은 2762.145($df = 935$), Q값은 2.954이었으며, RMR은 .025, TLI는 .853, CFI는 .861, RMSEA는 .0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Q값이 .3이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N = 778)

Factors	Social competence			
	Outgoing	Popularity / leadership	Interpersonal adjustment	Social participation
Warmth	.21***	.34***	.34***	.29***
Reasoning	.17***	.32***	.26***	.35***
Intrusiveness	-.10**	-.19***	-.36***	-.15***
Coercion	-.06	-.15***	-.34***	-.14***
Neglect	-.12***	-.20***	-.27***	-.31***

** $p < .05$. *** $p < .001$.

<Table 7> Fit index of observed model for cross validity (N = 779)

χ^2	df	Q(χ^2/df)	RMR	TLI	CFI	RMSEA
2762.145	935	2.954	.025	.853	.861	.050

하, RMR은 .05이하,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Kim, 2007)라는 기준을 만족시켰고, TLI와 CFI의 추천기준치가 .90에 가까우면 괜찮은 모형(Lee & Lim, 2008)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켰다. 본 교차타당도의 결과는 모두 수용 가능한 지수로서 모형의 양호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Table 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는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그리고 방임 등 총 45개 문항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온정 요인은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자녀 중심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온정 요인은 ‘웃는 얼굴로 아이를 대해준다.’, ‘아이와 함께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해준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온정이 여러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하나에 속한 점은 Park(1995)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결과들(Becker, 1964; Park & Lee, 1990; Rohmer, 1991)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온정 요인을 자녀에 대한 애정표

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으로 정의하였다.

논리적 설명 요인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잘못에 대해 지적해 주고,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며, 이해해 주는 행동을 합리적 지도라고 정의한 Hong(1994)을 포함하여 논리적 설명을 양육행동 요인 중 하나로 포함한 국내외 연구결과들(Barber, 1996; Hoffman & Saltzstein, 1967; Park, 1989)과 유사하다.

개입 요인은 자녀를 지시, 간섭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이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지 못하고 간섭을 한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아이의 실수에 대해 비난을 한다.’ 등의 9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과잉간섭을 자녀의 개인적 생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라고 정의한 Huh(2004)를 비롯한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들(Barber, 1996; Siegelman, 1965)과

비슷하다.

강압 요인은 자녀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하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찰싹 때린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찰싹 때린다.’,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벌로써 아이를 지도한다.’ 등으로 7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잘못하였을 때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 통제라고 정의한 국내외 연구결과들(Hoffman & Saltzstein, 1967; Park, 2010; Park & Lee, 1990; Patterson, 1980)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방임 요인은 자녀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요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훈육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비양육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방임 요인에는 ‘아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내버려둔다.’,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어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 등의 1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들(Deplanfilis & Dubowitz, 2005; Huh, 2004; Kim, 2008;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에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방임으로 정의한 것과 일치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온정, 통제 그리고 방임이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양육행동 요인을 그 기본 틀로 가정하였다. 이 가운데 온정은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Park, 1995; Park

& Lee, 1990; Rohner, 1984; Schaefer, 1959)과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인으로 그 의미도 매우 유사하다. 통제의 경우, 긍정적 측면인 논리적 설명과 부정적 측면인 강압을 포함한 점은 선행 연구결과(Karreman et al., 2008)와 유사하나, 이와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행동인 개입(Huh & Kim, 2004)을 포함하였다. 방임은 온정과 통제의 잘 알려진 두 가지 차원(Schaefer, 1959)에 더해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양육적 측면(Park, 2005)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행동의 요인들 가운데 통제의 영역을 확장시켜 제시한 연구결과들(Barber et al., 2005; Karreman et al., 2008; Schaefer, 1959)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져,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의 총 다섯 가지 양육행동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척도의 타당화 작업은 수렴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수렴타당도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국내외 연구결과들(Grolnick, 2003; Kim & Kim, 2005; Ko, 2008; Laible & Carlo, 2004)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Doh(1994)의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10(p < .05) \sim .35(p < .001)$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논리적 설명을 많이 한다고 응답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 또한 높게 보고하였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한다고 응답할수록 자녀가 또래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고, 또래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대인

간 적응이나 사회적 참여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교차타당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가 본 연구대상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유사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의 다섯 가지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 모두는 평가도구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과 관련하여, 수렴타당도와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이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강북, 강남, 강서, 강동 지역 등 다양한 지역 소재의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 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확장하여 보다 넓은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척도의 표준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아버지를 제외하였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점점 더 강조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넓혀 아버지도 포함함으로써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본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와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와 유사한 요인들로 구성된 타 양육행동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차타당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편의상 전체 연구대상을 척도개발을 위한 대상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으로 나누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과 비슷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각 요인별 적절한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alpha = .82 \sim .86$)를 확보하는 대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산출은 시도하지 않아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검사를 반복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가 매우 드문 시점에 대규모의 이 시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환기에 속한 학령 초기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탐색해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 외에 방임 차원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제를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총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외 관련 연구들(Arnold et al., 1993; Kim, 2011;

Lim, 2003; Park, 1995; Rohner, 1991)이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독창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문항 수로 인해 응답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의 문항 수를 10개 이하로 선정하였다. 척도의 문항선정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와 더불어 실제로 학령 초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예비조사 분석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용 가능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는 물론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유용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References

- Arnold, D. S., O' 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5, 137-144.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0, Serial No. 282).
- Barnes, G. M., Reifman, A. S.,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issues: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75-186.
- Baruch, G., & Barnett, R.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rry, W. D., & Feldman, S. (1990).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Byrant, B., & Crockenberg, S.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Buri, J. B. (1991).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110-119.
- Chae, H. J. (1993). The parents, children and professionals' perception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ng, C. J. (2014). The effects of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to child's aggress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s of neglect. *Social Science Research*, 30(2), 81-100.
- Cho, B. H., Lee, J. S., Lee, H. S., & Kwon, H. K. (1999).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 parent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0), 123-133.
- Cho, W. J., Bush, K. R., Xia, Y., Wilson, S. M., Li, W., & Peterson, G. W. (2014).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t low, moderate, and high levels of students'

- achievement in mainland China.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4(2), 95-108.
- Choi, I. J.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 ver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2), 45-56.
- Choi, S. J. (2005). The relationship of the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the sociomorality of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kmin University, Seoul, Korea.
- Cohen, J. (1990).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 Cruse, S. P.,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ePanfilis, D., & Dubowitz, H. (2005). Family connections: A program for preventing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10, 108-123.
- Doh, H. S.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categ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Doh, H. S., Lee, H. S., Kim, S. H., Choi, M. K., Lee, S. R., & Kim, S. W. (2011). *Human development and the family*. Seoul: Kyomunsa.
- Grolnick, W. S. (2003).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Mahwah, NJ: Erlbaum.
-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4th). Boston, MA: Allyn and Bacon.
- Hoffman, M. L., & Saltzstein, H. L.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5-57.
- Hong, K. O.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of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4), 181-191.
- Hwang, H. D., & Lee, J. S. (2010).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behavior and children's irrational belief on children's anger expression sty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0), 77-88.
- Huh, H. K., & Kim, H. S. (2004). *Adolescent development psychology*. Seoul: Hakjisa.
- Huh,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ung, E. Y. (2008). Development of an over-protection scale and study for valid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arreman, A., Tuijii, C. V., Aken, M. A. G., & Dekovic,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 of Family Psychology*, 22, 30-40.
- Kim, E. K., Doh, H. S., Kim, M. J., & Park, B. K. (2007). Social competence: Its relationship to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15-131.
- Kim, H. J. (2001).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2), 81-95.
- Kim, H. J., & Chang, Y. E. (2013). The effect of employed mothers's quality of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p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93-607.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K. J. (1985).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2), 35-52.
- Kim, K. Y., & Kim, K. Y. (2005).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Causal effects of rejection, victimization, and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pe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47-266.
- Kim, K. S. (2007). *Amos 16.0 Analysi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 Kim, S. H. (2008). The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for neglected children-focused on risk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ceive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scale: An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E. H. (2008).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young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aible, D. J., & Carlo, G. (2004).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self-worth, and sympath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 759-782.
- Lee, H. J. (2011).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maternal involvement behavior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S., & Lim, J. H. (2008). *Analysi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and Amos 7.0*. Paju: Bobmunsa.
- Lee, M. J. (1998). A study on the behavioral inhibition of 3-year-old girls and its related variab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M. (2000). *Foundation of factor analysis*. Paju: Kyoyookbook.
- Lee, S. Y.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scale based on the enneagram person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 Y. (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O. (2003).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linguistic control type and their perception of child-rea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H. (2003). The study on parenting adolescents in Kore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parenting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 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Milton, G. A. (1958). A factor analytic study of child-rear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29, 381-393.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Oh, J. S. (2011).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 Oh, S. Y. (2003). Psychological well being of children with working mother's depending on the type of after school care and parental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G. H.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personality stru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Park, H. J.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H. (2000).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 K. (2005). A study on risk factors by child neglect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198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4), 151-165.
- Park, S. 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1), 141-156.
- Park, Y. Y. (1995).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tterson, G. R. (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the Child Development*, 45, 1-64.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terson, M. S., & Durfee, M. (2003). *Child abuse and neglect: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Volcano, CA: Volcano Press.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 819-830.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Rollins, B. C., & Thoman,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Research based theories* (pp.317-364). New York: Free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S. (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 (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chaefer, E. S., Bell, R. Q., & Bai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eo, Y. J., Doh, H. S., & Choi, M. K. (2007).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ts relations with their shyness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239-248.
- Siegelman, M. (1965). Evaluation of Bronfenbrenner's questionnaire for children concerning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163-174.
- Song, J. Y. (1992).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Evaluation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1(5), 979-991.

- Song, M. 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igence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al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Tak, J. K. (2007). *Psychological testing*. Seoul: Hakjisa.
- Turner, P., & Harris, M. (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105-113.
- Yoon, S. K. (2004). Parenting styles, self-esteem, political efficacy, and collective social 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Received September 30, 2014

Revision received December 1, 2014

Accepted December 16, 2014